

〈연구보고〉

## 유사성 판단 과제로 본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

박 창 호<sup>†</sup>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시각적인 미의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8종의 문자 세트를 비교하였다. 비교된 문자 세트는 한글, 한자, 가타카나(일본어), 로마자, 그리스문자, 키릴문자, Devanagari 문자(힌디어), 아랍문자 등이었다. 27명의 대학생이 각 문자 세트에 대한 경험 빈도, 시각적 미, 선호도를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한 다음, 문자 세트들 중 2개씩 조합하여 만든 28개 쌍에 대한 유사성을 판단하였다. 평정 자료 분석 결과, 한글은 시각적 미(와 선호도) 점수가 높았지만, 한자와 가타카나의 점수는 낮았다. 유사성 판단 자료에 대한 다차원척도화(ALSCAL) 평면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 세트와 비교해서 한자 및 가타카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자기보고 평정과 시각적 유사성 판단 자료가 불일치하는, 이런 결과는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시각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국어 문자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적인 태도에 기초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한글, 아름다움, 선호도, 유사성, 다차원척도화

〈Brief report〉

## Visual Beauty of Hangeul Letters examined by Similarity Rating Task

Park, ChangHo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o investigate whether popular recognition of Hangeul's typeface beauty is based on visual judgment or not, 27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ate and compare 8 letter sets with one another. Those letter sets include Hangeul, Chinese character, katakana, Roman alphabet, Greek alphabet, Cyrillic alphabet, Devanagari, and Arabic alphabet. In the first session, frequency of experience with each letter set, visual beauty, and preference of it when decorating their belongings were rated in self-reporting style. In the second session participants rated similarity of every combinatorial pair derived from 8 letter sets. Analysis of ordinal data showed that Hangeul was rated highly in visual beauty and preference, but judged to be similar to katakana and Chinese character which were rated less beautiful and less preferable. In the 2-dimensional plane derived by ALSCAL, Hangeul was away from the other 7 letter sets but was relatively close to katakana and Chinese character. The result indicates that recognition of Hangeul's beauty is based not on visual judgment, but on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native letter set by Koreans.

*Key words* : Hangeul, beauty, preference, similarity, ALSCAL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sup> 교신저자 : 박창호,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54896)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567, Email: [finnegan@jbn.ac.kr](mailto:finnegan@jbn.ac.kr)

한글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세종25년 1446년 창제) 인공적인 문자세트이지만, 가장 성공한 문자세트이기도 하다. 훈민정음의 글꼴(서체, typeface, font)은 네모와 세모 등 기하학적 모양이었는데 조금씩 변형되면서 다양한 글꼴로 발전하였다(Park & Kim, 2012). 최근에는 디지털 폰트의 개발로 한글 글꼴이 무척 다양해졌다(Lee, Hong, & Sohn, 2003). 한글 글꼴과 관련해서 널리 통용되는 생각들 중 하나는, “한글이 아름답다”는 것인데, 해마다 한글날을 전후해서 관련 전시회나 매체에서 이런 주장이 되풀이된다.

시각적 미의 판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대칭과 복잡성(Jacobsen, Schubotz, Höfel, & Cramon, 2006), 복잡성과 각성(Berlyne, 1971; Marin, Lampatz, Wandl, & Leder, 2016), 의미충만성(Martindale, Moore, & Borkum, 1990), 처리유창성(Reber, Schwartz, & Winkielman, 2004)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미술 작품, 추상적 패턴, 혹은 도형을 사용해 왔는데, 글꼴을 사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한글 글꼴과 관련한 연구는 몇몇 발견되는데, Jung, Han, 및 Chung(1993)은 네모틀 글꼴이 탈네모틀 글꼴보다 미려감이 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Choi와 Park(2000)은 감성 어휘를 분석하여 본 몇 가지 대표적 한글 글꼴이 “아름답거나 화려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Jang과 Yoon(2003)은 여러 한글 글꼴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친숙성이 주요 결정인자라고 주장하였으며, Yoon(2011)은 중국인도 여러 한글 글꼴에 대해 한국인과 비슷한 감성 평가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e와 Jeong(2008)은 글꼴의 감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요소를 추출한 반면, Park(2008)은 비시각적 요인인 의미충만성이 미적 판단에서 결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한글 글꼴을 다른 문자의 글꼴과 직접 비교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글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별로 없고, 특히

한글 글꼴의 심미적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글이 아름답다”는 주장은 자칫 맹신을 낳고 한글 글꼴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둥근 형태가 각진 형태보다 미적으로 선호되는데(Bertamini, Palumbo, Gheorghes, & Galatsidas, 2016), 영어 알파벳과 달리 한글 자모는 주로 몇 개의 선분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고, 한글 글꼴에는 글자를 장식하는 요소인 세리프(serif)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즉 한글 글꼴은 시각적인 미적 요소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한글은 매우 친숙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Reber et al., 2004). 또한 한글 글자에서 연상되는 의미 요소들이 미적 평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Park, 2008). 이런 점을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한글의 시각적 미에 대한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한국인이 한글 글꼴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우려되는 문제는, 한글 및 다른 문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Greenwald, McGhee, 및 Schwartz(1998)는 암묵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반응시간 측정)와 태도 질문지의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평균  $r = .19$ 로 상관이 비교적 낮았다. 이런 결과는 자기보고식 평정에 태도나 가치관이 개입한 결과로 보인다. 태도나 가치관 이면에 있는 판단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평정을 차단하거나 우회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자 세트에 대한 시각적 유사성 판단 과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 과제는 한글이 다른 언어의 문자 세트(알파벳이나 자주 쓰는 글자들)와 시각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시각적 측면에 대한 주의는 선입견의 영향을 줄일 것이며, 이 방법으로 한글의 시각적 유사성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한글에 대한

미적 판단이 글자의 시각적 측면에 근거한 것이 라면, 시각적으로 유사한 문자 세트들은 자기보고식 미적 평정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을 보일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8개 언어의 문자 세트들을 선정하고, 각 문자 세트에 대한 자기보고 평정 자료와 문자 세트들 간의 유사성 판단 자료를 수집하였다.

## 방 법

**실험참가자** 28명의 대학생 참가자 중 1명의 자료는 미응답 항목 수가 많아 제외되었다. 남 16명, 여 11명의 참가자 모두 모니터의 가장 작은 글자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다.

**자극재료** 8종의 문자 세트에는 한글(예, ㄱ, ㄴ, ㄷ, ㄹ, ㅁ) 외에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의 문자이면서도 서로 유사한 것들을 제외한 결과로, 한자(예, 巾, 弓, 支, 戶, 无), 로마자(알파벳 예, a, b, c, d, e), 아랍문자(예, ح, ج, ت, ب, ل), 인도문자(Devanagari 문자; 예, क, ई, ऊ, ऐ, औ), 키릴문자(러시아어; 예, А, Б, Г, Д, Е) 등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한글과 자주 비교되는 일본문자(가타카나; 예, ア, イ, ウ, キ, ク)와 대학생들이 기호로 자주 접하는 그리스문자(예, α, β, γ, δ, ε)가 포함되었다<sup>1)</sup>. 자극판에 사용된 문자들은 명조체 계열로서 짧은 세리프를 가지고 있는 ‘함초롱 바탕’ 글꼴(한컴 오피스, 2010년 판)로 만들어졌으며, 5 x 5의 행렬로 배치되었다. 알파벳 언어의 경우에는 알파벳을 사용하였는데, 알파벳 수가 25개를 초과하면 형태상 유사한 것을 제외하여 그 수를 맞추었다. 일본어 가타카나의 경우에

는 시각적으로 유사한 것을 배제하여 선정하였으며, 한자는 ‘부수’ 중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면서도 획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은 것들을 선정하였다. 자극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선정되었으며 문자의 발음이나 의미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절차** 조사대상자들은 각 문자 세트에 대해 경험 빈도(“해당 문자 세트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 1~9점), 시각적 미(“얼마나 시각적으로 아름다워 보입니까”; 1~9점), 장식용 선호도(“지갑이나 폰 케이스 등 개인 소지품을 장식할 문자 세트로 몇 번째로 고르겠습니까”; 1~8번째) 순으로 평정했다. 각 평정 과제는 8개 문자 세트를 모두 제시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화면과 함께 시작되었다. 문자세트의 제시 순서는 각 평정 과제마다 무선적이었다. 문자 세트는 화면의 상단 가운데 제시되었으며, 질문과 평정 점수(와 점수의 설명)는 하단에 제시되었다. 참가자가 평점 점수의 숫자 키를 누르면 다음 문자 세트가 제시되었다. 본 과제에서 아름다움은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참가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 다음 유사성 판단 단계가, 전체 8개 문자 세트 화면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8개의 문자 세트 중에서 2개씩 조합하여 얻어진 28개 쌍을 좌우 혹은 우좌 순서로 배치할 때 총 56개의 자극판이 생성된다. 참가자들은 무슨 제시되는 56개 자극판에서 문자 세트 쌍의 유사성을 판단하였다. 비교되는 두 문자 세트는 화면의 상단 좌우에 제시되었으며, 질문(“두 문자 세트는 얼마나 유사합니까”; 1~9점)과 판단 점수(와 점수 설명)는 하단에 제시되었다. 참가자가 판단 점수에 해당하는 숫자 키를 누르면 다음 문자 세트가 제시되었다.

자기보고 평정 및 유사성 판단 과제의 진행, 문자 세트의 제시, 순서 통제 및 평정 점수의 수

1) 각 문자 세트의 첫 줄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자극판에서 문자의 크기는 비슷하게 조정하였으나 한자와 키릴 문자는 조금 큰 편이었다. 저자에게 연락하면 전체 문자 세트를 볼 수 있다.

Table 1. Average ratings of frequency of experience (Freq.), visual beauty (V.B.), and preference (Pref.) of 8 letter sets, their similarity to Hangul (left 4 data columns), correlations among Freq., V.B., and Pref. (right 3 data columns) ( $N = 27$ )

letter set	Freq.	V.B.	Pref.	similarity to Hangul	V.B. -Pref.	V.B. -Freq.	Pref. -Freq.
Hangul	8.037 (1)	6.778 (1)	5.852 (1)	-	.353 <sup>†</sup>	.373 <sup>†</sup>	.176
Chinese	3.963 (3)	4.111 (8)	3.481 (6)	3.019 (2)	.587**	.578**	.320
katakana	3.926 (4)	4.333 (5.5)	3.111 (8)	3.759 (1)	.495**	.303	.377 <sup>†</sup>
Roman	7.630 (2)	5.333 (2)	5.500 (2)	2.630 (3)	.273	.495**	.406*
Greek	3.889 (5)	5.185 (3)	5.444 (3)	2.333 (4)	-.082	.168	.381*
Cyrillic	2.852 (6)	4.444 (4)	4.111 (4)	2.296 (5)	.370 <sup>†</sup>	.187	.059
Devanagari	1.593 (7)	4.333 (5.5)	3.667 (5)	1.944 (7)	.749**	.133	.166
Arabic	1.296 (8)	4.185 (7)	3.333 (7)	2.000 (6)	.366 <sup>†</sup>	-.035	.123

Note. Rating ranges: 1 ~ 9 with frequency of experience, visual beauty, and similarity, and 1 ~ 8 with preference. Higher points indicate higher evaluation. Numbers in parentheses mean rankings of each letter set. For correlations, <sup>†</sup>.05 <  $p$  < .1, \*  $p$  < .05, \*\*  $p$  < .01,

집은 Superlab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었다.

### 결 과

각 문자 세트별로 경험 빈도, 시각적 미, 선호도(역채점)를 평정한 Likert 척도 점수의 평균이 Table 1(왼편)에 제시되었다. 표에서 ‘한글과의 유사성’은 유사성 판단 과제에서 다른 7개의 문자 세트가 얼마나 한글과 유사한지를 판단한 점수의 평균이다. 점수들이 대응 표본에서 얻어진 서열척도 자료이므로 모든 문자 세트를 비교할 때에는 Friedman 순위 검증( $\chi^2$ )을 썼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에는 Wilcoxon 순위 검증을 썼다(양측  $T$ ; 이하  $T$ 값은 생략하고 유의도만 표시한다). 경험 빈도 평정에서 문자 세트들은 동등하지 않았다,  $\chi^2(7, 27) = 138.97, p < .001$ . 두 집단씩 비교했을 때, 한글과 로마자의 경험빈도는 다르지

않았으나( $p > .1$ ), 이들 각각은 다른 문자 세트와 경험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모든  $p < .05$ ). 가타카나와 한자 간의 경험빈도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1$ ). 시각적 미 평정에서도 문자 세트들은 동등하지 않았다,  $\chi^2(7, 27) = 37.47, p < .001$ . 두 집단씩 비교했을 때, 한글은 다른 모든 문자 세트와 비교해서 우위를 보였다(모든  $p < .05$ ). 로마자는 그리스문자와 비슷한 순위에 있었으며( $p > .1$ ), 인도문자에 대해서는 우위의 경향성을 보였으며( $p < .1$ ), 나머지 문자 세트들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었다( $p < .05$ ). 가타카나와 한자는 유의한 우열을 보이지 않았다( $p > .1$ ). 선호도 평정에서도 문자 세트들은 동등하지 않았다,  $\chi^2(7, 26) = 38.027, p < .001^2$ . 두 집단씩 비교했을 때, 한글은 로마자나 그리스문자와는 우열을 가릴 수 없었으나( $p > .1$ ), 나머지 문자 세트에 대해서는 우위를 보였다( $p < .05$ ).

2) 누락 자료가 1개 있어서 분모의 자유도가 26이다.

.01). 로마자는 한글과 그리스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세트에 대해서 우위를 보였다( $p < .05$ ). 가타카나와 한자는 유의한 우위를 보이지 않았다( $p = .462$ ). 한글을 제외한 다른 7개의 문자 세트가 얼마나 한글과 유사하게 보이는지를 판단한 한글과의 유사성 점수에서 문자 세트들은 동등하지 않았다,  $\chi^2(6, 27) = 44.584, p = .000$ . 두 집단씩 비교했을 때, 한글과의 유사성에서 가타카나는 나머지 모든 문자 세트보다 우위를 보였으며( $p < .05$ ), 한자는 가타카나, 로마자, 그리스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세트보다 우위를 보였으며( $p < .05$ ), 로마자는 인도문자와 아랍문자보다 우위를 보였다( $p < .005$ ).

전반적으로 한글이 경험 빈도, 시각적 미,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로마자가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 대체로 그리스문자, 키릴문자, 인도문자 순이었다. 가타카나와 한자는 시각적 미 및 선호도 점수에서 순위가 낮았다. 한글과의 유사성은 가타카나와 한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로마자와 그리스문자 순이었으며, 키릴문자, 아랍문자, 및 인도문자는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결과를 요약하면, 시각적 미와 선호도에서 한글의 순위는 높고, 가타카나와 한자의 순위는 낮으나, 이와

동시에 한글은 가타카나 및 한자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

각 문자 세트 별로 경험 빈도, 시각적 미, 선호도 점수 간의 비모수(Spearman) 상관분석을 하였다(Table 1의 오른쪽). 시각적 미와 선호도 간에는 여러 문자 세트에 걸쳐 상관 혹은 상관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경험 빈도는 다른 두 변인과의 상관을 별로 보이지 않는 편이었으나, 예외적으로 로마자의 경우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글의 경우 경험 빈도는 시각적 미와 상관관계 경향을 보였다( $p < .1$ ).

문자 세트 간 유사성 점수를 거리 점수(서열척도)로 바꾼 자료에 대해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의 다차원척도화(ALSCAL)를 하였다. Figure 1은 그 결과(Stress = .0336,  $R^2 = .996$ )를 보여 준다. 가로축의 왼쪽 끝에 로마자와 그리스문자와 키릴문자가 모여 있고, 오른쪽 끝에는 한자와 가타카나가 모여 있다. 그리고 세로축 위쪽에는 인도문자와 아랍문자가 모여 있고, 한글은 이 세 집단 모두와 떨어져 세로축 아래쪽에 조금 비껴서 있다. 가로축은 문자의 곡선성의 고저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세로축은 문자 내부의 복잡성과 관련되는 듯이 보인다. 다차원척도화의 결과는 한글은 본 연구에 포함된 다른 7개 문자 세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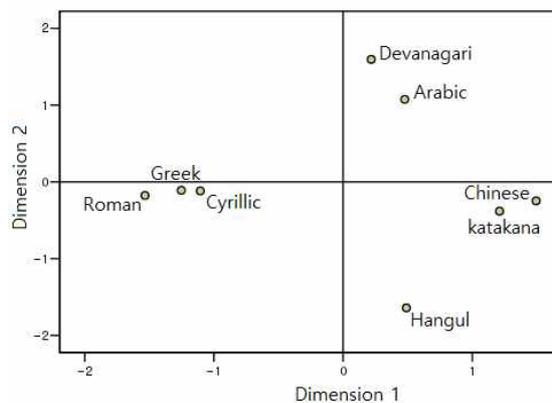


Figure 1. Result of multi-dimensional scaling with 8 letter sets. Horizontal axis is associated with curvedness of letters, vertical axis with their complexity

어느 것보다 뚜렷하게 집단화되지 않지만, 가타카나 및 한자와 비교적 더 유사하다고 판단됨을 보여 준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시각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8개의 문자 세트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정 자료와 시각적 유사성 판단 자료를 수집하여, 두 가지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자기보고식 평정에서 한글은 함께 비교한 다른 8개의 문자 세트와 비교해서 자주 경험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우며, 선호되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한자와 가타카나는 중간 정도로 자주 보지만, 아름답지 않으며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유사성 판단 및 다차원척도화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 세트에 비해 가타카나 및 한자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만일 참가자들이 한글의 시각적 측면을 중심으로 시각적 미와 선호도를 평정하였다면, 한글 및 이와 유사한 가타카나와 한자에 대한 시각적 미와 선호도 평정은 비슷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타카나 및 한자에 대한 시각적 미와 선호도 평정은 한글의 경우와 거의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기보고식 평정이 참가자의 선입견에 의해 왜곡된 탓으로 돌려질 수 있다. 참가자들이 직접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 태도나 가치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Redies, 2015). 이에 비해 시각적 유사성 판단은 형태에 대한 전역적인 처리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역 처리는 빨리 진행되고(전역선행성, Navon, 1977) 여러 번 반복되는 판단 과정은 신속하고 직관적인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선입견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인들이 한글이 아름답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지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자기보고 평정과 수행 측정치 간의 괴리는 암묵연합검사를 통해서도 발견되었다(Greenwald et al., 1998). 한글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자나 가타카나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기보고 평정은 모국어에 대한 선입견이나 가치관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한글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한자나 가타카나는 아름답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로마자와 그리스문자는 한글과 중간 순위로 유사하다고 평정되었는데, 시각적 미와 선호도에서는 한글 다음으로 높은 평정을 받았다. 이런 결과는 로마자나 그리스문자에 둥근 형태가 많고 둥근 형태가 선호되는 현상(Bertamini et al., 2016)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로마자의 경험 빈도가 미적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글의 경우에는 경험 빈도가 미적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듯이 보이는데, Park(2008)도 글자에 대한 미적 판단에서 사용 빈도의 효과를 관찰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친숙성이 한글 글꼴 선호도의 중요 요인이라는 주장(Jang & Yoon, 2003)과 일치하지 않는데, 한 가지 설명은 한글이 매우 자주 경험하는 자극이어서 본 연구에서 경험 빈도가 일종의 천장 효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로마자나 그리스문자는 한글만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 빈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글꼴의 심미성은 글자의 인지 및 지각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둘 간의 관련성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Reber 등(2004)의 처리 유창성 가설은 심미적인 글꼴이 더 잘 처리될 것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Diemand-Yauman, Oppenheimer, 및 Vaughan(2011)은 어려운 글꼴로 제시된 내용이 더 잘 기억된다는 결과를 얻었다(비유창성효과, disfluency effect). 심미적인 자극은 주의를 더 잘 끌 수 있는 반면, 자극의 시각적

측면으로 주의를 유도함으로써 심층적 처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Nakamura & Kawabata, 2014). 이런 역학을 고려할 때 글꼴의 심미성 효과는 글자 처리 과제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문자 세트를 비교하는 과제에서 연구자나 참가자나 모두 키릴문자, 아랍문자, 인도문자 등에 대한 경험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 점이 시각적 판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표집한 문자들이 편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용된 여러 문자 세트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외국인 참가자에게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향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연구에서 사용된 문자들이 행렬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으로 제시될 경우 시각적 인상 및 미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다양한 글꼴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Jang과 Yoon(2003)과 Jung 등(1993)에서 보듯이, 글꼴의 미적 판단은 같은 문자 세트 내에서도 사용된 구체적인 글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명조체 계열 이외의 글꼴에서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얻어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로 비록 본 연구에서는 두 과제 모두 시각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문자의 시각적 미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정이 유사성 판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과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사성의 판단은 문자 세트 전체에 걸친 시각적 특징에 기초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자기보고식 심미성 평정은 문자 세트의 세부적 측면 외에도 연상 가능한 여러 이미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적 판단에는 시각적 요소 이외에도 의미적 충만성(Martindale et al., 1990; Park, 2008)과 같은 개념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데, 참가자들은 자기보고식 평정에서 그런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미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탐구는 인간의 심미성 지각과 관련하여 계속 검토할 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 한글을 아름답다고 보는 생각의 기초를 탐색하는 것은, 한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함축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Berlyne, D. E. (1971). *Aesthetics and Psychobiology*. NewYork, NY: Appleton-Century-Crofts.
- Bertamini, M., Palumbo, L., Gheorghes, T. N., & Galatsidas, M. (2016). Do observers like curvature or do they dislike angularit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7*, 154-178.
- Choi, D., & Park, Y. (2000). A study on the gamsung engineering analysis of the Korean character. *Proceedings of 2000 Annual Fall Conferenc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13-19.
- Diemand-Yauman, C., Oppenheimer, D. M., & Vaughan, E. B. (2011). Fortune favors the bold (and the italicized): Effects of disfluency on educational outcomes. *Cognition*, *118*, 111-11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Jacobsen, T., Schubotz, R. I., Höfel, L., & v. Cramon, D. Y. (2006). Brain correlates of aesthetic judgment of beauty. *Neuroimage*, *29*, 276-285.
- Jang, H., & Yoon, H. (2003). A study on estimate based on human sensibility analysis and preference about Hangul characters as design factor.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and*

- Sensibility*, 6, 49-58.
- Jung, W. H., Han, J. J., & Chung, C. S. (1993). The effects of Hangeul letter form on readability. *Proceedings of Annual Conference on Hangeul and Korean Language Information Processing*, 207-216.
- Lee, H., Hong, Y., & Sohn, E. (2003). 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Hangeul font classification system in digital environment.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6, 5-14.
- Lee, J., & Jeong, J. (2008). A study of quantitative correlation between Hangeul font and the emotional express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21, 255-266.
- Marin, M. M., Lampatz, A., Wandl, M., & Leder, H. (2016). Berlyne revisited: Evidence for the multifaceted nature of hedonic tone in the appreciation of paintings and music.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10. doi: 10.3389/fnhum.2016.00536
- Martindale, C., Moore, K., & Borkum, J. (1990). Aesthetic preference: Anomalous findings for Berlyne's psychobiologic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03, 53-80.
- Nakamura, K., & Kawabata, H. (2014). Attractive faces temporally modulate visual attention. *Frontiers in Psychology*, 5. doi: 10.3389/fpsyg.2014.00620
- Navon, D. (1977). Forest before trees: The precedence of global features in visual perception. *Cognitive Psychology*, 9, 353-383.
- Park, C. (2008). The influence of meaningfulness on the judgment of the beauty of Hangeul characte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 621-633.
- Park, S. H., & Kim, S. H. (2012). Study of expression styles of Hangeul fonts utilizing calligraphy. *Journal of Korea Design Knowledge*, 21, 81-91.
- Reber, R., Schwarz, N., & Winkielman, P. (2004). Processing fluency and aesthetic pleasure: Is beauty in the perceiver's processing experi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8, 364-382.
- Redies, C. (2015). Combining universal beauty and cultural context in a unifying model of visual aesthetic experience.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9. doi: 10.3389/fnhum.2015.00218
- Yoon, H. (2011). Sensitivity analysis on Korean fonts between Korean and Chinese.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4, 637-644.

1 차원고접수 : 2016. 12. 15

수정원고접수 : 2017. 04. 26

최종게재결정 : 2017. 04. 26